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주택 재개발 차질없이 진행"

"경기불황으로 주민이 느끼는 생활 고통지수가 커가고 있는 만큼, 올해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구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난 극복에 두겠다고 밝혔다.

효사랑·그린시티 조성

또한, 지난 19일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정부로부터 '지식재산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을 기반으로 남구를 '발명·특허의 도시'로 특화하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지난해 '복지정책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발명진흥 유공 대통령상 수상, 그린시티(녹색도시)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황 청장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효사랑 도시, 건강도시, 지식재산도시, 그린시티' 조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 경기 부양에 힘쓰고,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을 가속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냄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요량이다.

황 청장은 "고싸움 놀이 영상체험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벨트 조성, CGI(computer generated image·컴퓨터 특수효과) 센터 건립과 연계한 송암산단의 경쟁력 제고,

송암산단 경쟁력 제고

농·축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고용 창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또 그린시티로 지정된 도시답게 저 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춰 환경관련 행사 개최, 탄소 은행제도 시행, 생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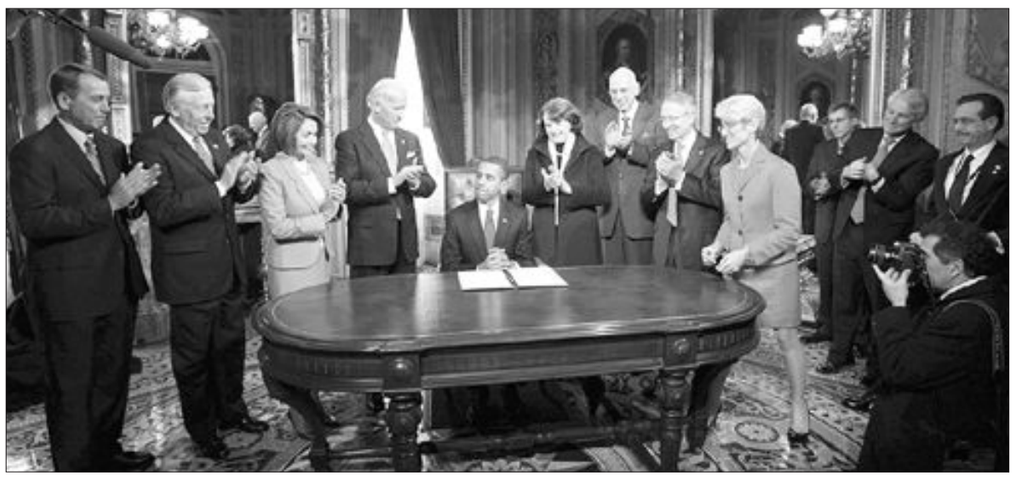
황 청장은 "건강도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사랑 인정도서의 전국 보급과 효사랑마을 지정 등을 통해 '효 사랑'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완공되는 빛고을실버건강타운과 각종 노인복지 시설을 연계시켜 남구를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탄소은행 제도 시행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노인 일자리사업·독거노인 헬스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남구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



20일(현지시간)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마치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상하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후 첫 법안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권주의 버리고 협력외교 선언

■오바마 취임사 어떤 내용 담았나

도전·위기 극복 '8대 덕목' 실현 촉구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사를 통해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미국' 재건이라는 과업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를 향해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선언,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주노선을 버리고 공존공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근면과 정직, 용기, 페어 플레이 등 8대 덕목을 실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오바마는 이날 역대 대부분의 대통령보다 추상적인 표현이나 언어적 기교를 피한 채 구체적이고 짧은 표현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비장감을 강하게 풍겼다.

오바마는 먼저 자신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지만 미국에겐 중대한 위기의 와중임을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지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임한 상태"이며 "우리 경제는 탐욕과 무책임의 결과 및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몹시 약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실제 상황"이라면서 이런 도전이 심각할 뿐만아니라 많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거듭 각인시키며 쉽게 또 짧은 기간에 해결되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오바마는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오바마는 "오늘,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희망을, 갈등과 이견을 넘어 화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게티스버그(남북전쟁), 노르망디(2차대전), 게 산(베트남전쟁) 등에서 미국인들의 희생을 예로 들며 미국의 위대함이 주어진 게 아니라 획득한 것임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세계평화의 시대를 위해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 패권주의적 일방외교였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했다.

우선 미국이 미래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의 친구임을 선언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이라크 주권을 이라크인들에게 책임있게 넘겨주고 아프간에서의 평화를 지키며, 핵위협 감소와 지구온난화라는 유령을 물리치도록 오랜 우방은 물론 과거의 적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는 미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근면과 정직, 용기, 페어플레이, 관용, 호기심, 충성심, 애국심 등 8대 덕목을 제시하고 자신과 국가, 세계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취임 200만 몰려

사상 최대…온라인 770만 접속 신기록

오바마의 취임식 축하를 위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한복판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0만가량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취임식 경호업무를 총괄한 비밀검찰국(Secret Service)은 별다른 사고나 잡음 없이 취임식이 무사히 끝났다고 총평했다.

워싱턴포스트와 AFP 통신 등 주요 언론은 20일 미 정부 관리를 인용,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려고 수도 워싱턴 D.C.의 심장부에 위치한 의회의사당부터 내셔널몰에 이르는 대형 광장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밀집했다며 이는 워싱턴D.C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은 또 미국의 인터넷 역사에서도 기념비적 전환점으로 기록됐다.

수많은 미국인이 TV 등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비디오 영상을 통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본 것이다.

포털과 신문·방송의 인터넷뉴스 등 각종 웹사이트에 인터넷 영상을 제공하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사에 따르면 770만명이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취임식 영상에 동시 접속해 이 부문의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이뤄졌다. 백악관은 이날 낮 12시 정각을 기해 "'WhiteHouse.gov에 변화가 왔다"는 선언을 담은 새 디자인의 대통령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한·미 정책협의 '더딘 행보'

북핵·FTA 등 현안 산적
'고위급 접촉' 제한적

버락 오바마 미 정부가 20일 정식 출범했지만 한·미 외교 고위급간 접촉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정책 협의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당국은 작년 11월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미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바마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모들과 접촉, 한반도 문제와 한미관계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달 초에는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단 소속 학자들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위성락 외교통상부 장관 정책특보 등으로 구성된 방미단이 워싱턴에서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로 유력한 커트 캠벨 등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워싱턴 수뇌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식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 "힐러리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이 정비되는대로 정식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 북핵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이는 8년 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던 때에 비하면 너무 지지부진한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가 워낙 거물급이다보니 과거와는 달리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오바마 시계' 국내 업체가 제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사인 등이 들어간 기념 손목시계(사진)가 국내 한 시계제조업체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 주문 제작 전문업체인 케이엘 피코리아㈜는 작년 12월 미국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오바마 대통령의 기념 손목 시계를 제작, 납품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념 시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과 사인, 대통령 휘장 등이 새겨졌으며 시계의 금속틀과 소가죽으로 된 검은색 악어무늬 밴드는 국산, 시계의 핵심 부품은 일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